

GIST 설립 30주년...세계 석학들과 AI주제 다양한 행사

GIST-MIT 공동연구 심포지엄 AI정책전략대학원 비전선포식 "아시아 AI 헤드쿼터로 자리매김"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임기철)이 설립 30주년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PAI 등 국제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캐나다, 호주, 미국, EU,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영국, 멕시코, 인도 총 15개 창립 회원이 합

개 발족했다.

'4차 산업혁명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AI'를 메인 주제로 하는 'AI4Good(사회적 가치 지향 인공지능) 포럼'을 필두로, ▲GIST-MIT 공동연구 심포지엄 ▲AI대학원의 AI Day Special Talks ▲haGIST AI정책전략대학원 비전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AI4Good는 경제·환경·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사회적 가치지향 인공지능을 뜻한다.

행사 첫날인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GIST가 주관하는 'AI4Good 포럼'이 GIST 오펜관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AI4Good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세션과 정책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책 세션에는 AI를 활용한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혁신, 문화 창의성, 그리고 국제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평가받는 Neur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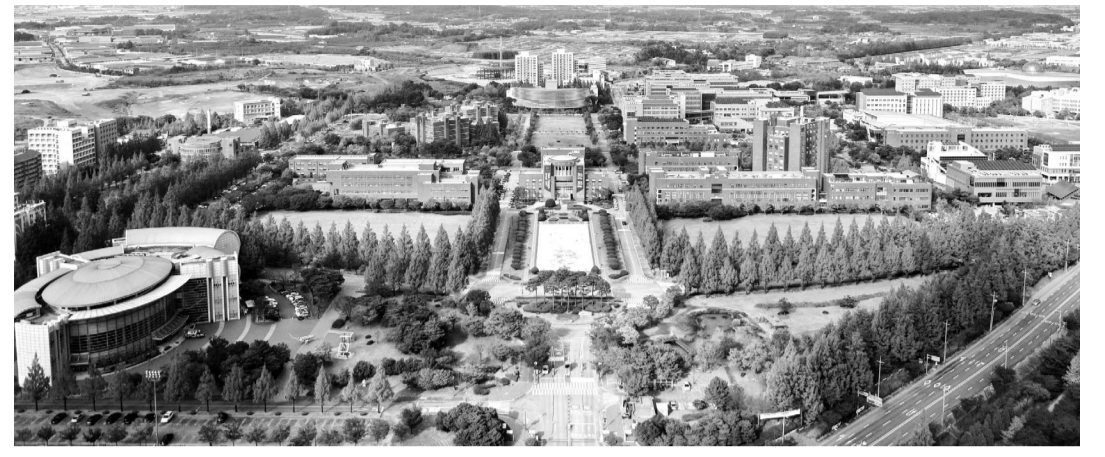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의장인 테리 세즈노스키(Terry Sejnowski) UC 샌디에이고 교수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과 트랜둡(Tran Duc Binh) ASEAN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UN, OECD 등 AI 정책 분야의 국제기구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R&D 연대 구축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유관 산업·학계·연구기관·정부기관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이 기대된다.

2024년 9월 개원 예정인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의 비전선포식도 이날 개최된다.

현재 설립추진단은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AI정책전략대학원은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인재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AI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GIST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연구소(CSAIL)에서 주관하는 'GIST-MIT 공동연구 심포지엄'도 열린다.

한편 2일(목)과 3일(금)에는 GIST AI대학원이 주관하는 'AI Day' 행사가 '생성형 AI와 초거대



오는 11월 17일 설립 30주년을 맞는 GIST는 1993년 설립 이래 박사 1838명을 포함해 석사 4910명 등 총 7915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했다. 사진은 GIST 전경. <GIST 제공>

AI'를 주제로 AI대학원 TED홀에서 열린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내년 개원 예정인 AI정책전략대학원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아시아 AI 헤드쿼터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 R&D

연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GIST는 1993년 설립 이래 박사 1838명을 포함해 석사 4910명, 학사 1167명 등 총 7915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간호학과(학과장 류은진)는 27일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다. 간호학과 최지연씨 등 학생 126명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원대 제공>

농어촌 학생들 '일상 속 책 읽기' 확산시킨다

전남교육청, 도서 인프라 구축...독서 동아리·학급문고 지원

전남교육청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학생들의 '일상 속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인문 동아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우선 교통신용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각 학교에서 책으로 여는 아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교실 학급문고도 운영한다. 독서인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나도 작가 프로젝트' '독서인문교육 주간'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교과 통합 독서인문 프로젝트



수업' '인문학 교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의 기본은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며 "교통신용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 책을 읽는 것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중국·키르기스스탄 대학들과 국제 협력 교류

한산사범대·오시국립대와 학술·연구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인 광주대학교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현지 대학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차오저우시와 남창시를 방문했다.

김동진 총장과 전정환 국제협력처장 등 광주대 방문단은 20일 국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산사범대학의 개교 1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진 총장은 "한산사범대학의 개교 120주년을 계기로 더욱 돈독한 신뢰를 쌓고, 학술·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교류를 통해 양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토대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대 방문단은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교류를 지속해 온 중국 남창시 소재 남창공정대학을 방문, 전기공학과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더욱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다짐했다. 남창이공대학과는 태권도 분야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 총장은 "광주대 태권도부 학생들은 매년 전국 대회에서 괄목할 경기력과 실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유학생 태권도 정부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광주대와 남창이공대학의 활발한 체육 교류가 현실화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대는 최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오시국립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갑용 부총장을 단장으로 전정환 국제협력처장, 공하림 국제교육센터장 등으로 꾸려진 중앙아시아 방문단은 지난 13일 오시국립대학교 투르스노프 빌

무타 압딜자노비치 부총장 및 김정영 교수(오시국립대 교수·오시 2세종학당 학당장) 등을 만나 양 대학의 국제 교류 확대 및 글로벌 상호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시국립대는 중앙아시아의 5대 대학 중 하나로 키르기스공화국에서 가장 큰 인원과 규모를 자랑하며, 중앙아시아 대학 3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학교이다.

광주대는 지난 7월, 오시국립대 산하 오시 2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간 교환학생 및 여학 연수생 파견, 학부 및 대학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연구 프로젝트 추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광주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서 한국어교육 전공 및 다문화융합전공, K-문화콘텐츠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대학 선정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의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효과중진형)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정서안정과 신체건강,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와 작업치료학과가 연계해 '산림 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노인의 심리·신체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효과 검증'을 제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동신대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국립나주숲체원, 전남도산림자원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역 복지·요양시설의 노인 1300여 명에게 ▲숲길과 지형을 활용한 운동 ▲자연물 체험 활동 및 감각 놀이 ▲두뇌·인지 기능 향상 활동 등 치매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